

칠곡군보건소, 찜찜이 걷기동아리 간담회

동아리간의 상호교류와 소통
에로사항이나 지원방향 논의

칠곡군 보건소는 지난 15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찜찜이 걷기동아리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아리간의 상호교류와 소통하고 동아리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지원방향에 대한 의견청취, 동아리 평가에 따른 기준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5월부터 개설된 모바일 걷기앱인 워크온 찜찜이 걷기동아리는 대박동아리등 21개 동아리

243명이 가입해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아리 대표 A씨는 “워크온 찜찜이 걷기가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며 “동네전체가 다 가입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 보건소는 걷기실천율, 체성분검사 참여율등 4개 항목을 평가하며 참여수기제 출시 기산점을 부여해 11월에 우수 2개 동아리를 시상하기로 했다.

칠곡군 보건소는 걷기동아리 활성화 및 다양한 보건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박노균 기자

칠곡군보건소, 찜찜이 걷기동아리 간담회

칠곡군 보건소(소장 문귀정)는 지난 15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찜찜이 걷기동아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동아리간 상호교류와 소통, 애로사항, 지원방향 의견청취, 동아리 평가에 따른 기준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부터 개설된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찜찜이 걷기동아리는 대박 동아리 등 21개 동아리 243명이 가입해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칠곡군 보건소는

걷기실천율, 체성분검사 참여율 등 4개 항목을 평가하고 참여수기 제출 시 가산점을 부여해 11월에 우수 2개 동아리를 시상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아리 대표 A 씨는 “워크온 찜찜이 걷기가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며 “동네 전체가 다 가입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귀정 칠곡보건소장은 “걷기동아리 활성화 및 다양한 보건사업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ahlyn@kyongbuk.com

경북매일

2018년 06월 18일 월요일
009면 경북
6.2 x 15.7 cm



워크온 짬짬이 걷기동아리 간담회

【칠곡】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15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짬짬이 걷기동아리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

지난 5월 개설된 모바일 걷기앱인 ‘워크온 짬짬이 걷기동아리’는 대박동아리 등 21개 동아리 243명이 가입해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동아리간의 상호교류와 소통하고 동아리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지원방향에 대한 의견청취, 동아리 평가에 따른 기준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 측은 앱을 통해서 걷기실천율, 체성분검사 참여율 등 4개 항목을 평가하고, 참여수기 제출시 가산점을 부여해 오는 11월 우수 동아리 2곳을 시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아리 대표 A씨는 “워크온 짬짬이 걷기가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며 “동네전체가 다 가입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귀정 칠곡군보건소장은 “걷기동아리 활성화 및 다양한 보건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 쓰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